

經穴 光선치료 연구를 위한 피터만델의 光色針 고찰 (I)

김경철*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Study on the Peter Mandel's Colorpuncture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lor-light Therapy for Acupoint by the Visible Ray(I)

Gyeong Cheol Kim*

Department of diagnost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The eyes can register color oscillations and that colors have an effect on the psyche. Human is constantly surrounded by an immense range of vibrations to which he must react and resound. And the skin can be compared to an antenna which amplifies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outside and then passes it on to the inside. Therefore the art of many medicines make use of the skin as a medium of treatment. Peter mandel discovered centers, or zones, on the human body, which represent or correspond to the three primary colors(red, blue and yellow). And he came across to the four temperaments(or humors) and their respective colors, which consist of the primary colors with the addition of green.

Key words : Peter Mandel, Colorpuncture, color-light therapy for acupoint by the visible ray

서 론

色(color)과 빛(light)은 물, 공기, 흙과 함께 인간 생명의 필수 조건으로써 우리의 건강과 생활에 영향을 준다. 21C 현대 물질문명의 발달로 자연 태양광선과의 접촉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그 결과 여러 폐단이 의학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연치유력 약화로 일어나는 여러 증상이 현대병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빛과 색의 의학적인 연구는 그 가치를 발휘하고 있으며, 미래 의학의 한 영역으로 등장할 것이다.

한의학은 태양 중심 의학으로써,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한의학의 이론이 펼쳐지고 있다. 이는 바로 생명현상의 발현에서는 태양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 유지에 절대적인 빛이므로 이 빛이 부족하거나 왜곡되면 우울증, 의욕상실, 학습부진, 골다공증, 치매 등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는 마치 영양분이 부족하면 영양실조에 걸리듯이 빛이 부족하면 光 실조에 걸리는 것이다.

에디슨의 전구 발명 이래로 수많은 인공 광원이 개발되어

조명환경의 다양화를 실현시켰다. 대부분의 인공조명은 천연의 태양광선과 거리가 먼 왜곡된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문제가 있다. 불안정한 불빛의 인공조명이 인체에 각종 생물학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색과 빛에 의한 칼라 라이트요법의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광선의 응용영역과 치료부위의 선택 등에 따라서 여러 방면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폴스펙트럼을 이용한 신체 전반적인 부위에 대한 자극 요법¹⁾, 탄소봉을 이용한 신체 일정 부위에 대한 선택적 가시광선 영역을 이용한 요법²⁾, 특정 경혈에 대한 선택적인 광선 요법³⁾, 생체 활성화를 위한 미세 광에너지 요법⁴⁾ 등이 전반적으로 시술되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광선 요법이 주로 가시광선 밖의 응용이라면⁵⁾, 칼라라이트 요법은 가시광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저자는 한편으로는 전세계적인 칼라 라이트 요법의 연구에 부응하며 또 한편으로는 한의학의 치료기술 확장과 21c에 알맞은 무통 치법의 개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치료부위의

* 교신저자 : 김경철, 부산시 진구 양정동 산45-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kimkc@dongeui.ac.kr, Tel : 051-850-8649

· 접수 : 2004/01/19 · 수정 : 2004/02/26 · 채택 : 2004/03/25

1) 빛과 건강 219p.

2) 종합광선치유법, 101p.

3) colouring me healing 88p.

4) 극미약 광에너지에 의한 생체의 면역력 증강 효과

5) 한방 물리치료학 266p.

선택에서 경혈 중심으로 그리고 광선의 응용영역에서 가시광선 중심으로 광색침(colorpuncture)을 개발하여 임상적인 효능을 보고있는 피터만델의 colorpuncture의 내용을 수차례 걸쳐 번역 소개하고자 한다.

본 론

(광·색 치료법 개요)

1. 빛과 색

창조의 첫날에 신은 “거기에 빛이 있게 하라” 라고 말했다. 빛은 거기에 있었고 그것은 바로 지구상에서 생명의 시작이었다. 양자이론에서 증명되었듯이 빛은 파의 형태뿐만 아니라 입자의 형태로서도 존재하며, 따라서 물질이나 생명은 이 이원적 구조를 함축하고 있다. 빛과 생명사이엔 인과 관계가 있다는 자각은 인간의 가장 초기의 날들로 거슬러 올라간다. 모든 종교에 있어서, 모든 시대에 있어서 빛은 신성한 상징이나 신성 그 자체로 존중되어졌는데 이것은 “나는 세계의 빛이다”라고 한 예수의 말에서도 증명되었다.

빛과 색이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은 기억할 수 없는 시대 때부터 알려졌다. 빛과 생명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색은 생명 전체의 표현이다. 오랜 동안 잎은 왜 녹색이며, 꽃은 왜 파랑이나 빨강이며 구름은 왜 흰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색은 무엇인가? 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Isaac Newton은 17세기 색의 스펙트럼 속에서 광선을 굴절시킨 프리즘의 도움으로 흰색 빛의 구성 요소를 발견했을 때 그 설명을 내 놓았다. 스펙트럼의 색들이 다른 길이 (혹은 주파수)의 파와 일치하는 것은 그 후에 발견되었다. 물체의 색은 그것의 분자 구조가 다른 것들이 반사되는 동안 어떤 스펙트럼의 색깔들이 통과하도록 허락하는가 하는 사실에 의해 결정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색으로 인식하는 반사이다. 색의 생리학적 인식을 규정하고 오늘날 여전히 흥미 있는 색의 이론을 공식화하는 것이 Goethe의 특권이었다. 그는 이 이론을 그의 생애의 작업으로 존중했으며 이 가치를 그의 학문적 성취 위에 두었다. 다른 많은 색의 이론들이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더 정밀히 조사해 보면 그 이론들은 모두 괴테(Goethe)의 생각에서 유래된 것을 알 수 있다.

무엇이 그의 이론에 있어서 그렇게 혁명적인가? 근본적으로 그는 색을 같은 방식으로 응용할 수 있는 조화의 법을 공식화했다. 그는 단지 세 가지의 근본적인 색 즉 빨강, 파랑과 노랑이 존재할 뿐이며 모든 다른 색들은 이 세 가지를 섞어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이 기초 색들을 정삼각형의 꼭짓점에 배치했는데 이것은 조화된 기하학적 형태이며 음악에 있어서의 삼화음과 일치한다. 이 세 가지 기본색 중 두 가지를 같은 양으로 혼합하면 혼합색이 만들어 질 것이다. 예를 들면 빨강과 노랑은 주황색을 만들고 노랑과 파랑은 초록을 만들고 파랑과 빨강은 보라색을 만든다. 만약 이 혼합색들이 자신들이 기원한 기본색의 점들 사이에 배치된다면 결과는 정점이 아래로 향하는 두 번째 정삼각형이 될 것이고 따라서 색의 여섯겹원(six fold circle of color)을 형성할 것이다. 이 원(괴테가 규정한 것처럼 6가지 색

의 원)에서 서로 반대되는 색들은 보색이라 부른다. 녹색은 빨강의 보색이고 (그리고 역도 또한 같음) 노랑은 보라의 보색이며 파랑은 주황의 보색이다. 만약 보색들을 같은 양으로 함께 섞는다면, 결과는 언제나 회색이 될 것이다. 이것은 보색을 혼합하게 되면 세 가지 기본 색들이 모두 모이게 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혼합색인 보라는 두 가지 기본색인 빨강과 파랑으로 구성된다. 만약 보색인 노랑이 보태지면 결과는 회색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색인 빨강, 파랑, 노랑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다른 색을 볼 때 다른 감각을 경험한다. 어떤 사람들은 찬 것으로 인식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따뜻하게 느낀다. 만약 색의 원이 한편에는 빨강, 반대편에는 녹색을 가진 반으로 나누어진다면 따뜻한 색은 오른쪽에서 보게 될 것이며 차가운 색은 왼쪽에서 보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나는 해부학자인 Becher의 작업과 그가 1954년에 이루어낸 발견을 언급하고 싶다. 그는 망막과 시각세포사이의 다극성 영양세포 (multipolar vegetative cells)에서 망막 시상하부束(retino - hypo thalamic bundle)의 기원을 찾아냈다. 그는 이 세포들을 간뇌의 전진기지가 되는 것으로써, 자율신경계 내분비계 정신의 삼각관계에 대해 생각하였다. 이 발견에서 결정된 것처럼 자율신경계와 눈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자율신경계 등이 모든 기관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므로, 눈으로 인식한 색의 진동 역시 기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Goethe가 자주 인용한 외침을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다.

- 눈은 태양과 비슷하지 않다.
- 태양은 결코 우리를 볼 수 없다.
- 우리 안에 신의 힘이 충만하지 않은데
- 어떻게 신성한 세력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겠는가?

2. 사람은 색의 바다에서 살고 있다 - 생체기능에 대한 색의 영향
빛과 색의 진동이 총체적으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물론 색깔시험(color tests)에서 증명된 것처럼 눈이 색의 진동을 기록하고 색은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나는 빛과 빛 속에 포함된 진동이 전체로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발견하는데 특히 관심이 있었다.

물질의 생성 후 우주의 절대 필요한 부분인 사람은 물질과 우주를 통제하는 形而下法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광범위한 볼 수 없는 자극에 반응하고 있다. 예를 들면 조화된 음향(sounds)과 음질(tones)은 우리에게 안락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이완과 평안의 상태를 가져다준다. 이런 상태에서 사람은 신경질, 공포 그리고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의 호흡은 더 깊어지고 만족과 균형의 감정을 따라 정다운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진동이나 보이지 않는 자극이 어떻게 사람 생명의 모든 수준 즉 정신적이거나 영혼적 또는 육체적인 면에서 사람을 조화시켜 만족과 평화와 평안의 상태를 만들어 내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일 뿐이다. 그러나 인간은 항상 반응하고 감응해야만 하는 무한한 범위의 진동에 둘러싸여 있다.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은 여러 종류의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만약 사람이 균형과 조화의 상태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의

조정적 장치는 끊임없이 더 크거나 더 작게 반응하게 될 것이다. 어떤 대담에서 나는 Die Kosmische Oktave라는 책의 작가인 Cousto와 함께 한 적이 있는데, 그가 나에게 대기 속에서 전자석의 진동을 실행한 연구 작업을 말하였으며 전자석의 진동은 또한 구면기하학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러한 날씨 주파수가 우리의 행복 감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날씨 변화에 감각과민인 많은 사람들이 용납 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려진 바와 같이 전자석의 충격이나 구면기하학은 신체에 영향을 미치고 반응하도록 강요한다. 이러한 반응과 영향의 종류에 개의치 않고 신체는 개적인 행복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전체로서의 개인이 밖으로부터의 영향에 끊임없이 반응하고 반응하도록 강요받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준다. 안에서와 같이 밖에서도 그러하다라는 속담은 또한 반대가 될 수 있다. 나의 모든 연구 작업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진동이 우리 내부에 반사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 장기의 블록제인 세포의 진동적 행위는 인간 이해의 한계를 초과한 수준이나 상태뿐만 아니라 세포 주변의 진동적 행위와 일치하는 듯 하다. 이런 경우와 내부에 있는 모든 것이 외부에 있는 모든 것과 일치되는 상태에 있다고 가정해 보면 우리는 우리 주변의 진동이 모든 우리의 생명과정에서 활동적인 부분으로 작용한다는 걸 계속해서 추정할 수 있으며 특히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생명이 없는 조정적 과정을 증시해야 한다.

Head, Mackenzie, Putkamer, Dicke, Leube, Cornelius와 많은 다른 이들의 작업을 토대로 하여 신체의 표면인 피부는 외부에서 받은 정보를 증폭시켜서 내부로 전해주는 안테나에 비유되어 질 수 있다. 1983년 다른 의학 학교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반사지대의 조사를 출판한 Gleditsch 박사의 작업은 내가 관심을 가졌던 내부와 외부라는 어떤 착상과 생각을 명확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우주, 지구와 사람을 에워싼 대우주는 또한 생명의 최소 블록제인 세포에 반사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일어났다. 내면과 외면의 중재자는 감각기관들인데 외면의 경우 피부는 특별한 의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수천년의 전통을 돌아 볼 수 있는 중국의 의술은 치료의 중재자로 피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작가들이 묘사한 것과 같은 방법이다. 마사지, 사혈(부항) 침 혹은灸등등 포함된 방법이 이차적으로 중요하든지 아니든지 간에 공통적 요소는 효과가 피부를 통해 외부에서 내부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생리학적 용어에 있어서 피부는 압력, 접촉, 진동, 온도와 동통을 자동으로 기록 할 수 있다. 우리는 표면의 체내장 감각과 심부의 체내장 감각을 구별하지만 양자의 경우에 있어서 피부는 신체 내부로 가는 통로가 된다. 사실 모든 시대와 문화를 통하여 피부는 대부분의 질병에 있어서 치료를 위한 매개물이었다.

이 후성의 고대문화는 태양의 치유력을 광범위하게 사용했는데 예를 들면 많은 위대한 문명 내에서 실행된 태양문화 같은 것으로 입증되어진다. 신들은 태양과 동일시되었고 신들이 태양의 초자연적 힘의 도움으로 그들의 힘을 다시 얻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병이 드러났다. 고대의 위대한 의사이며 서양의학의 아버지인 Hippocrates는 일광욕 요법을 심봉했는데 그는 그것을 특

히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추천했다. 따라서 빛으로 하는 질병의 치료는 확실히 새로운 것이 아니다. 덴마크의 의사이며 현대 광선 요법의 발견자인 Niels Finsen은 1903년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 빛과 색에 관한 연구작업으로 노벨 의학상을 수상했으며 1904년 Rollier가 광선요법에 관한 작업으로 그의 뒤를 이었다.

고대의 광선요법과 일광욕 요법은 빛을 전체 즉 완전한 실재로서 사용했다. 도대체 어떻게 개개의 색들이 단독으로 치료할 수 있겠는가? 색들은 빛의 성분이거나 변화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빛의 “아이들”) 빛과 같은 치유력을 가진다고 추측할 수 있다. 많은 고대 문명들은 이것을 신봉했다. 예를 들면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 인디아, 중국에서 각각의 색들의 치유력이 인식되어졌고 사용되어졌다.

현대의학 또한 어떤 병들의 치료에 있어 색요법을 사용하는 데, 적외선과 자외선의 경우 같은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색요법을 거부하려 하는 것은 다소 놀라운 일이다. 적색과 보라색은 전자기적 진동이 있으며 신체에 영향을 미치고 스펙트럼의 반대 끝에 놓여있다. 적색과 보라색 사이에 놓여 있는 색들도 신체에 치료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인가? Babit, Gebhardt, Von Langsdorf 등등은 일반적인 찬성을 얻은 색요법의 개요를 출판했다. 비록 성공적으로 치료된 경우가 알려졌을 지라도, 아직 비교적 이 계획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숙련자는 거의 없다. 그러나 의사들은 어떤 불쾌한 부작용도 없이 순하고 효과적인 약물의 형태를 발견해야하는 문제에 빈번히 직면한다. 일반적으로 하나는 다른 하나를 배척한다. 그러나 전체 스펙트럼의 빛을 치료로 이용하는 색요법은 하나의 방법으로 두 가지 필요조건을 충족시킨다. 한편으로, 색요법은 순하다 왜냐하면 통증이 없고 어떤 부작용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색요법은 체세포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3. 색, 사람과 체질(기질)

사람의 눈은 빛의 스펙트럼 내에서 일곱 가지 다른 색을 구별해 낼 수 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赤, 靑, 黃의 기초 색들이 특히 흥미롭다. 왜냐하면 무지개의 다른 색들인 초록, 주황, 남색과 보라는 이 세 가지 기본 색들 중 2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눈은 169가지의 다른 색조를 식별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색들은 세 가지 기본 색으로 축소될 수 있다.

나는 신체에서 세 가지 기본 색들에 해당하는 중심 혹은 지대를 발견했다⁶⁾. 이 지대들은 스펙트럼 색의 순서대로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척추를 따라 위치하고 있다. 각각의 특별한 지대는 문제의 색의 진동 전위의 저장소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 후에 설명되겠지만 이 지대들은 특별한 진단적 치료적 중요성을 지닌다.

색요법에 관한 문헌을 연구하는 동안 나는 Ebehard 교수의 논문에서 우연히 4가지 체질(혹은 기질)과 그에 상당하는 각각의 색을 발견했는데 그 색들은 기본 색에 녹색이 더해진 것이다. 4 체질 혹은 기질의 아이디어는 B.C.131년 Claudius Galenus에 의

6) 기본 색의 지대는 독백상에 위치하며, 머리 지역은 靑色, 가슴 상응부위는 황색, 복부 상응 부분은 녹색 下腹과 생식기 상응부분은 赤色임

해 공식화 되었다. 그는 4가지 다른 종류의 성격을 분별했는데 그들을 각각 melancholic(우울한), choleric(성난), sanguine(쾌활한, 다혈질의), phlegmatic(냉정한, 점액질의)로 불렀다. 체질과 이에 상응하는 색들의 비교는 놀라운 유사성을 나타낼 것이다.

우울한 사람은 신경이 무디며 심각하고 내성적이며 에너지가 낮아서 감정의 장애로 괴로워하는 경향이 있다. 그는 상냥하고 유용하지만 예민하다. 항상 어두운 공기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은 보통 우울하다. 가장 어두운 기본색은 청색이며, 이 색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우울한 체질의 특성에 비유되어 질 수 있는데 feeling blue나 having the blues라는 용어로 적절히 표현되고 있다. 우울한 체질의 반대는 성난 체질이다. 같은 색은 적색인데 활기와 흥분을 암시하며 성난 사람은 흥분하기 쉽고 충혈되고 자의식이 강하며 언제나 움직이고 있다. 그는 결코 휴식하지 않으며 그의 용기는 그의 분노와 투쟁성 만큼 유명하다. 같은 색인 적색은 따뜻한데 성난 기질의 사람은 정열적이다. 쾌활한 체질은 황색과 전유어 질 수 있다. 쾌활한 사람은 빛의 화신이고 명랑하며 낙천주의이고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접근을 한다. 황색은 절정에 있는 태양과 여름의 계절을 뜻한다. (스펙트럼 색의 원에서) 네 번째 체질은 냉정한 사람인데 나태함과 무관심으로 특징 지워진다. 냉정한 사람의 유물론적인 본성은 세속적이고 냉혈적이며 인정미 없는 사람으로 규정짓는다. 그는 특히 지적이고 정신적인 일에 관심이 없으며 그가 관심을 보일 때는 단지 그 과정 중에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Dark green이 냉정한 성격의 색이며 다음에 색 표시에 관한 구분에서 논의 될 Light green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Dark green은 가을과 따뜻함의 상실과 저녁시간에 빛의 감퇴를 상징한다.

4체질 색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Claudius Galenus가 묘사한 4기질의 특성과 일치한다. 비록 한 체질만으로 특징 지워지는 개인을 발견하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색들의 특성은 여전히 고려되어야 한다. 4체질 색들을 인체에 바꾸어 놓음으로써 4체질의 진동과 일치하는 특별한 지대를 발견했다. 기본색들처럼 이 지대들은 척추를 따라 발견되어졌다. 이 지대들을 가지고 사람의 일반적인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만약 어떤 사람이 우울하다면 반대극인 성난극이 적색으로 치료되어야 한다. 같은 식으로 성난 사람은 우울한 지대인 靑色을 적용하므로써 안정될 수 있다. 쾌활한 체질의 사람은 그의 용솟음쳐 오르는 열광적인 체질을 조절하기 위해서 녹색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냉정한 성격은 그의 불활발을 극복하기 위해 黃色이 필요하다.

색의 도움으로 심리학적 경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은 색의 진동(여기에서 모든색을 의미한다)이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 건강상태의 존재나 부재를 수반한다는 것을 나에게 확신시켰다. 이것은 척추 위의 체질점을 따라 머리지역은 靑色이고 우울하며 가슴은 황색이고 활발하며 배 부분은 녹색이고 냉정하며 下腹과 생식기 부분은 적색이며 성남이라는 생각을 내가 하도록 했다. 이러한 개념은 내가 치료지침을 공식화하는 많은 기본적 깨달음을 가져왔다. 이것들은 다음의 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당분간 우리는 각각의 색들에 대한 징후의 요약을 계속 할 것이다.

4. 색 징후들

모든 색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치유력은 색이 지닌 각각의 특성과 일치한다. 따라서 뜨겁고 적극적인 색인 적색은 순환과 피의 흐름이 증가되어야 할 경우에 사용된다. 모든 만성질환들은 적색광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 적색이 피의 흐름을 빠르게 하는 반면에 靑色은 냉각시키고 상쾌하게 하며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진 차갑고 소극적인 색으로 생각되고 있다. 열과 화농을 동반한 모든 병들은 靑色光으로 치료되어야만 한다. 신경과민과 불면증, 복통, 출혈과 염증은 靑色光으로 치료하는 것에 잘 반응한다. 靑色光에 노출되는 것은 원기를 돋우고 상쾌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피로에 신선한 에너지를 제공할 것이다. 황색의 생물의 원기를 돋구는 효과가 있으며 우울하고 감정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靑色光치료로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靑色은 내분비계를 강화시켜서 안정적 진행을 급성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마비의 경우에 필요로 하게 된다. 靑色은 또한 胃와 腸管, 肝, 방광과 콩팥의 치료에 필요하다. 靑色光에 너무 오랜 시간 노출되면 메스꺼움(惡心)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1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반면에 녹색은 진정시키고 가라앉히며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다. 녹색은 눈병, 기관지 카타르, 백일해, 관절의 염증, 통풍과 당뇨병에 필요하다. 부종과 다결절은 일반적으로 녹색광 치료에 잘 반응할 것이다. 나는 지금 각각의 색과 그들의 징후들을 더 세밀하게 다루고자 한다.

적색(Red) : 적색은 불의 색이다. 적색은 연소하는 색이고 찬란한 태양의 색이고 생명 그 자체의 색이다. 사랑과 분노, 기쁨과 노여움은 이 색과 관련되어 있다. 적색은 가장 강한 침투력을 가진 색이며 피의 흐름을 강하게 자극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적색은 순환이 나쁘고 혈액공급이 부족한 경우에 필요하게 된다. 적색은 심장, 肺, 근육의 색이다. 적색은 피부질환, 만성해수, 천식, 후두질환, 빈혈, 삼출성 습진과 동상뿐만 아니라 비화농성 상처와 염증에도 맞는 색이다. 적색은 허를 느슨하게 하며 원기를 돋우고 흥분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열정을 자극하고 고무시킨다. 적색은 게으른 사람을 더 활동적으로 만든다. 느릿한(점액질) 어린이들은 적색光 아래서 숙제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청색(Blue) : 이것은 평화와 무한대의 색이다. 靑色은 차가운 색으로 여겨지며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다. 靑色은 뇌하수체와 내분비계의 색이다. 열을 수반하는 모든 질환은 靑色光 치료가 필요하다. 이 색은 또한 화농, 동통, 多血症과 充血을 수반한 질병에 필요하다. 靑色은 치질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사마귀는 靑色光 조사의 효과로 사라지며 靑色은 감상선종, 어떤 심장질환, 불면과 출혈의 치료에 필요하다. 靑色은 고환에 영향을 미쳐서 陰萎, 불감증과 갱년기에 필요하게 된다. 靑色은 근육, 인대와 조직의 수축을 조절한다. 과도하게 활동적인 어린이들은 靑色光 아래서 숙제를 해야 한다. 이 색은 조용함과 침묵을 촉진시킨다.

황색(Yellow) : 황색은 정점에 이른 태양을 상징하며 뜨거운 색 중의 하나이다. 황색은 소화를 촉진시키고 신경을 강화시키며 위를 자극한다. 일반적으로는 상쾌하게 하며 원기를 돋구는 효과가 있다. 靑色은 내분비계를 강화시켜서 만성적

진행과정을 급속하게 하며 간, 방광, 신장과 위의 질환에 필요하다. 황색은 어린이들에게 학습과 이해를 촉진시켜서 知力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소화관의 모든 질환은 황색광으로 치료되어야한다. 욕구불만인 사람들은 황색광에 노출될 때 얼굴 표정에 변화가 나타난다.

녹색(Green) : 녹색은 자연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색이며 중립적 요소로 여겨진다. 녹색은 기관지 카타르, 백일해와 관절의 염증(요즘에는 靑色으로 대체)에 필요하다. 모든 만성 질환은 녹색광의 간헐적인 사용에 잘 반응하며 정밀한 작업은 녹색광 아래서 더 잘 할 수 있다. 녹색은 眼질환과 당뇨병뿐만 아니라 종양, 궤양과 낭종에도 필요하다. 녹색은 균형을 잡는 효과가 있어서 만족과 평안의 느낌을 촉진시킨다. 녹색은 또한 진정시키고 가라앉히며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다.

4체질 색에 덧붙여서 많은 혼합색들 또한 흥미가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단지 한 체질로만 구성된 사람은 거의 없으며 따라서 때때로 다음에서처럼 체질 색을 혼합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오렌지색(Orange) : Orange는 赤色과 黄色의 혼합이며 기쁨과 행복의 색이다. Orange는 욕구불만, 비관, 정신병, 우울과 공포에 필요하다. Orange는 그러나 공포로 병든 사람을 치료할 때는 靑色으로 대체 되어야만 한다. 동맥경화증과 뇌와 관상동맥경화증 같은 모든 경화적 진행에 Orange는 잘 반응한다. Orange는 일반적으로 심장질환에 관해지는 특히 심부전증에 필요하다. 그러나 심장 발작이나 협심증의 결과를 치료한 경우에는 위에서 본 공포의 경우에서처럼 청색으로 대체되어야만 한다. 아침에 Orange光을 잠시 쬐는 것은 이맘때에 만성적으로 지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Orange는 의욕을 향상시키고 따뜻한 마음을 촉진시킨다. Orange는 상쾌하게 하고 원기를 돋구는 효과가 있어서 일할 마음이 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힘과 기쁨을 빌려준 것이다.

연녹색(Light green) : 黄色과 녹색의 혼합인 이 색은 지적 능력을 촉진시키고 신경을 강화시키며 일반적으로 신체를 안정시키고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다. 소화관의 病처럼 황색으로 치료되는 모든 질병들은 녹색광을 사용하면 더 부드러운 방식으로 치료가 될 수이다. 나는 또한 연두색이나 녹색으로 총괄의 상부 끝을 상부 끝을 치료 치료하게 되면 신체를 해독하는데 매우 성공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두색은 백일해, 갱년기, 신경의 염증, 마비 신장질환, 당뇨와 모든 소화관 질환에 필요하다.

주황색(Yellow-orange) : 황색과 Orange의 결합은 의지력과 따뜻한 마음과 행복을 촉진시킨다. 이것은 Orange에서 설명했던 모든 질환에 사용될 수 있다.

보라(Blue-violet, or dark violet) : 보라는 언제나 정신과 연관되며 따라서 보라는 무의식에 작용하며 개인의 정신적인 힘을 빌려주고 자각과 의식을 촉진시킨다. 보라는 모든 종류의 명상의 효과를 증진시키며 또한 영감의 색으로 존중되고 있다. 보라는 비장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며 임파계의 기능을 촉진시킨다.

남색(Indigo, or dark blue) : 이색은 blue light로 치료되는 모든 질환에 사용될 수 있으며 결과는 강렬할 것이다. 무지개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색으로 직관력을 증진시키고 영상의 효과를 증가시키는 색으로 생각된다.

각각의 색들로 치료될 수 있는 질병들의 이러한 요약은 주제에 유용한 문헌에서 수집되었는데 이 문헌들은 전세계의 많은 색 요법사와 연구작업들에 의해 기고된 것이다. 나는 이 일람표가 불완전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색 사용으로 이룰 수 있는 놀라운 효과의 완전한 묘사를 시도하는 것은 이 책의 범위를 넘는 일이 될 것이다. 위의 요약은 단순히 독자에게 색이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많은 방법들 중 한가지의 생각을 제공하려는 것뿐이다.

결 론

눈으로 인식한 빛과 색의 진동은 인체 기관에 영향을 미친다. 인간은 반응하고 감응하는 진동에 둘러싸여 있는데, 신체의 피부는 외부의 정보를 증폭시켜 내부로 전해주는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치료의 증재자로 피부를 사용하여 다양한 자극을 줄 수 있다. 피터 만델은 신체에서 세가지 기본 색들이 영향을 미치는 신체의 지대를 발견하고, 더불어 녹색이 첨가된 색에 상응하는 4가지 기질을 알게 되었다. 또한 색은 본래의 특성에 따라 치유력이 있으며, 이는 앞으로 계속 연구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최동완 역, 빛과 건강, 에이원, 1999.
2. 이세희, 종합광선치유법, 홍익재, 1996.
3. Jack Allanach, Colour me healing, ELEMENT, 1997.
4. 방건웅 외6인, 극미약 광에너지에 의한 생체의 면역력 증강 효과, 한국정신과학회지, 2(1):45-51.
5. 김진한 역, 색채의 영향, 시공사, 1996.
6. Peter mandel, Colorpuncture, energetik verlag, 1986.
7. 김경철 외1인, 가시광선을 이용한 경혈 광색 치료기 개발, 동의논집, 33집, 2000,8.